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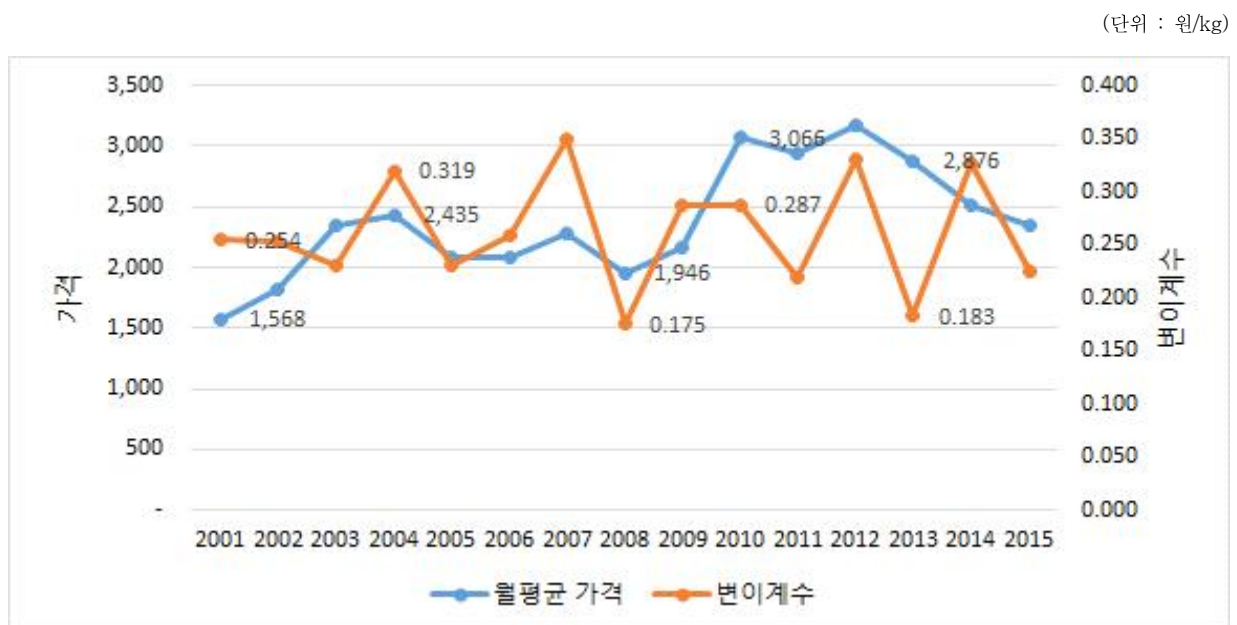
축성 딸기의 생산비 기준 상위 7개 항목의 연평균 변화율 산출 결과(2001-2015) 유기질비료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광열동력비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.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종자/종묘비, 영농시설상각비, 광열동력비를 제외한 생산비 항목들이 감소하였다.

<표 3-3-15> 딸기(축성) 생산비 기준 상위 7개 세부항목의 변화율

순위	세부항목	최근 5개년 평균		변화율	
		금액(원)	비중	연평균	2014 vs. 2015
1순위	자가노력비	2,895,135	27.6%	3.3%	-10.0%
2순위	제재료비	1,855,303	17.7%	1.8%	-5.5%
3순위	종자/종묘비	1,562,992	14.9%	2.5%	0.5%
4순위	고용노력비	1,034,598	9.9%	4.1%	-1.5%
5순위	영농시설상각비	699,839	6.7%	6.3%	14.9%
6순위	광열동력비	552,093	5.3%	11.2%	4.4%
7순위	유기질비료비	321,396	3.1%	-2.3%	-3.8%

나. 토마토 농가 경영현황 및 생산비 변동 추이

분석기간(2001-2015) 동안 토마토의 가격은 4.4%, 변이계수는 10.1% 상승하였다(그림 3-3-5).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증가율이 각각 가격 4.4%, 변이계수 58.5%로 변이계수의 증가폭이 높았다. 토마토의 경우 연도별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위험관리 수단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농가의 배분효율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.



<그림 3-3-5> 연도별 딸기 도매가격 및 변이계수 변동 추이(2001-2015)

자료 : 농산물 유통정보(aT KAMIS)